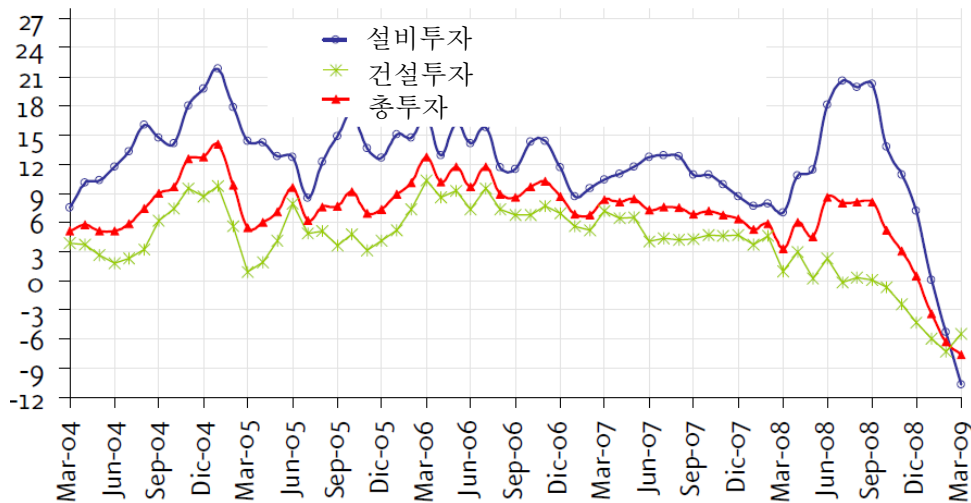


## 멕시코 경제 동향

### □ 총고정자본형성

- 3월중 멕시코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동기대비 4%가 감소했으며,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기준으로는 7.6%가 감소
- 한편,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설비투자는 -7.3%로 이중 수입은 -7.5% 국내조달은 -6.9%를 기록했으며, 건설투자도 1.9% 감소

#### 멕시코 총고정자본형성 증감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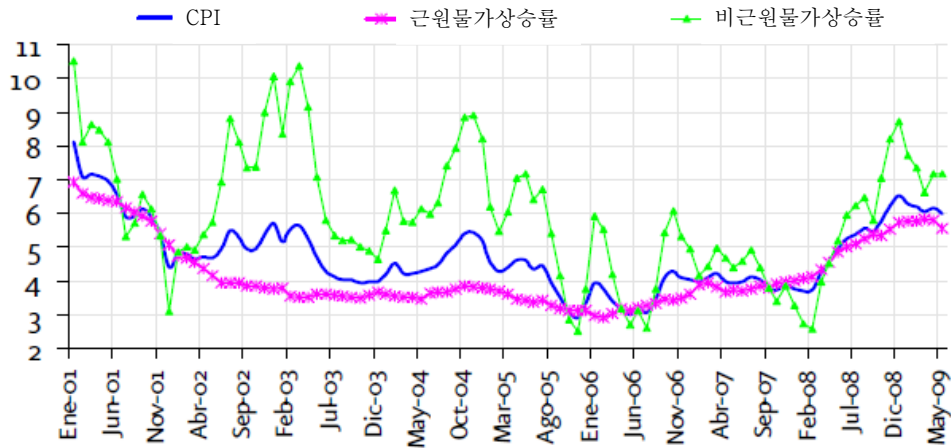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### □ 인플레이션

- 5월중 인플레이션은 근원물가 상승폭 감소와 비근원물가관련 지표의 부정적 변화로 0.29%가 감소.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를 토대로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을 전월 전망치보다 0.19%p 감소한 5.98%로 수정

- 한편,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인플레이션은 1.09%로 비교적 낮은 증가세 시현

### 연도별 물가상승률 추이(2001~200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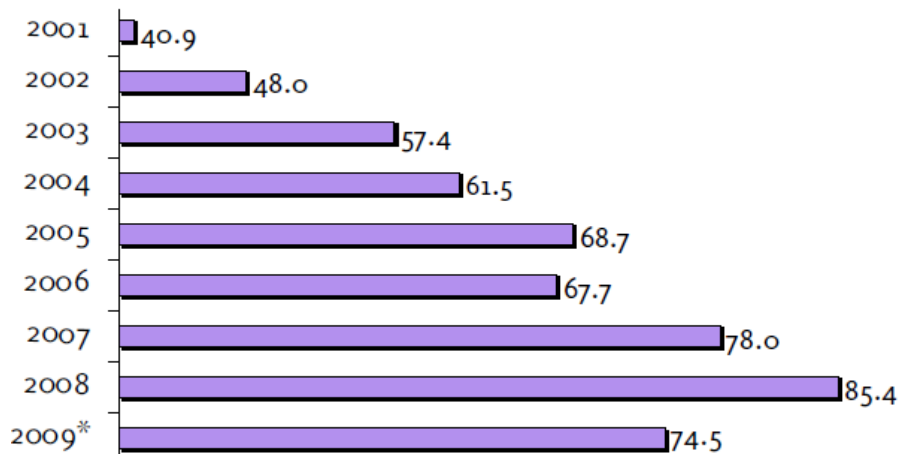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### □ 외환보유고

- 6월 5일 현재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74,485백만 달러로 전주대비 1,169백만 달러가 줄어들었으며 전년말 대비로는 10,956백만 달러 감소
- 이는 최근 정부의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매각금액 증가에 기인

###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

(단위 : 십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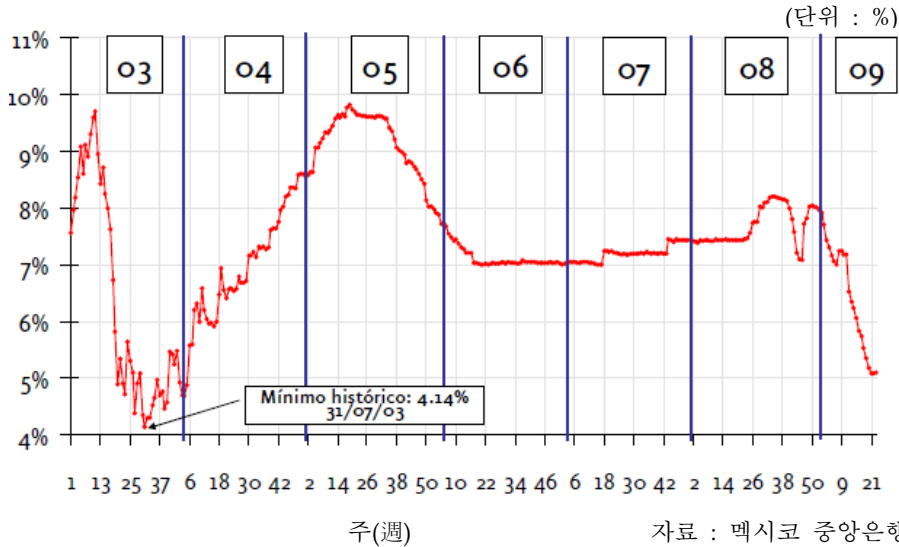
\* 2009년은 6월 5일 현재 기준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## □ 금 리

- 6월 9일자 멕시코의 28일물, 91일물 및 175일물 기준금리(CETES)는 전주대비 각각 2bp, 6bp 및 10bp 하락한 5.10%, 5.15% 및 5.22% 기록
- 한편, 3년 만기 채권 시세는 6.20%로 2bp 오른 가격에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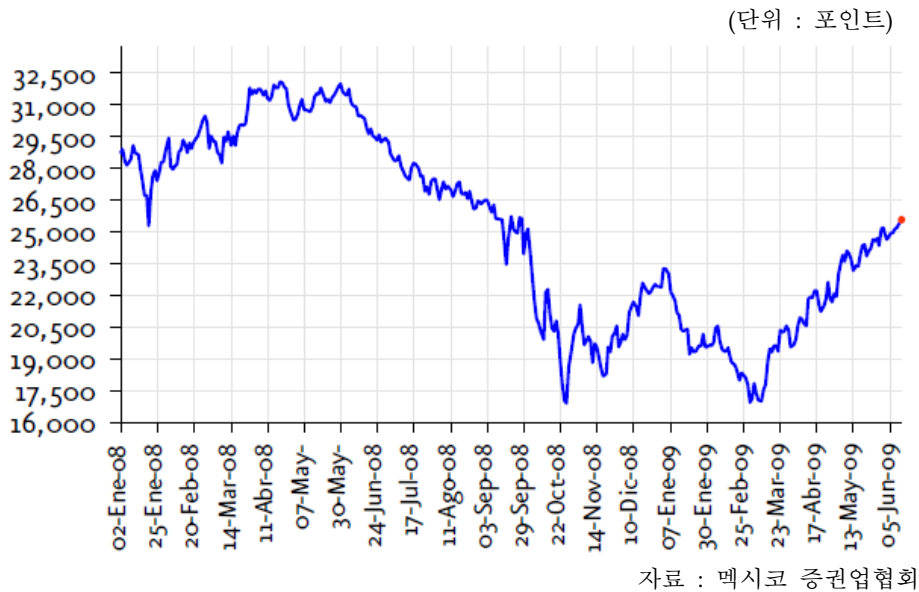
###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(CETES 28일물 기준)



## □ 주식시장

- 멕시코 증시는 전주대비 2.22% 오른 25,460.02를 기록했으며, 연초대비 폐소화 기준으로는 13.76%, 달러화 기준으로는 17.44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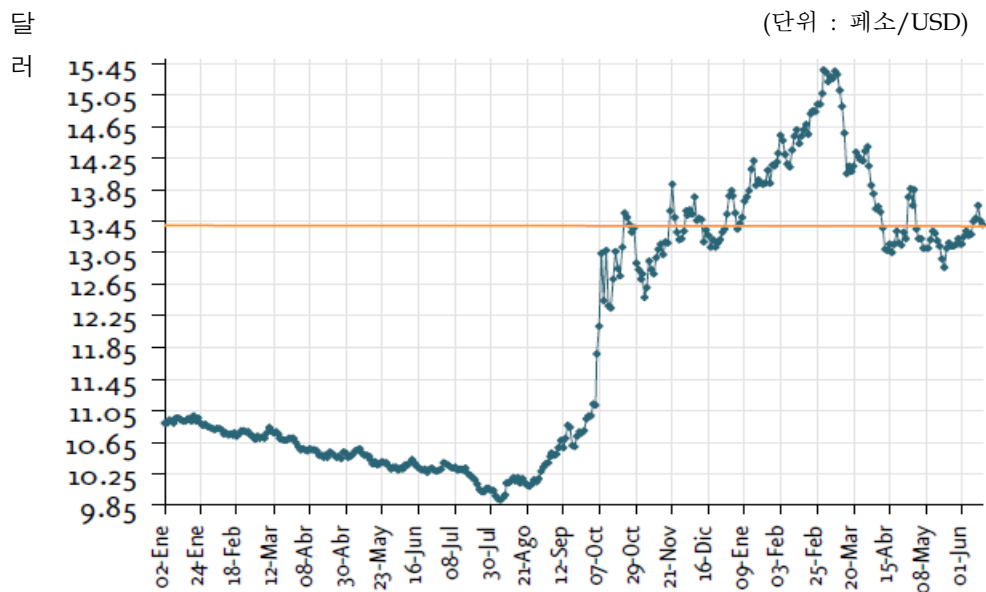
###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



## □ 환 율

- 6월 12일 마감 페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3.39997페소로 전주대비 12.29센타보가 올랐으며, 금년 현재까지의 누적평균 환율은 연초대비 43.28센타보 하락한 달러당 13.8993 페소를 기록

### 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(2007~20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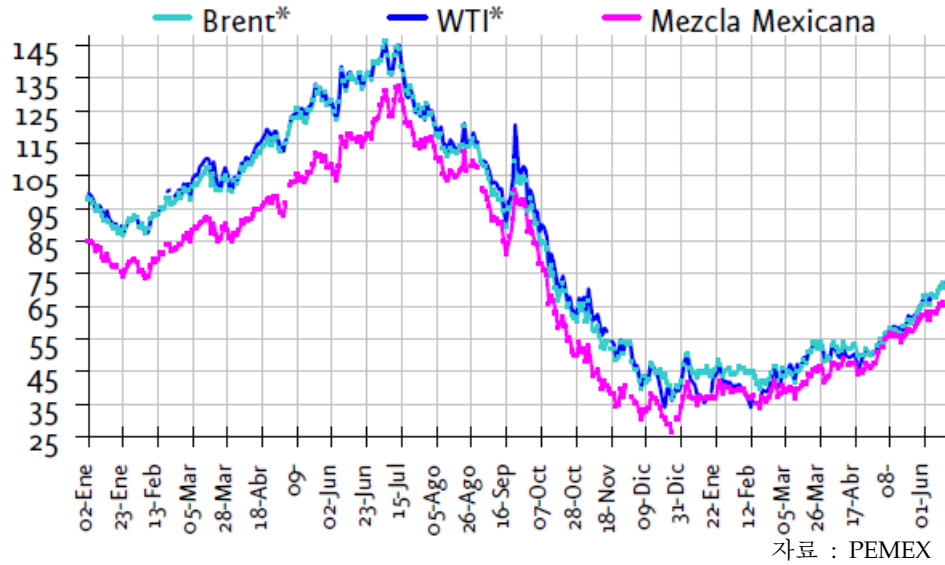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## □ 원유수출가격

- 6월 12일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전주대비 2.82% 오른 배럴당 64.93달러에 거래되었으며, 연초대비로는 89.74%가 상승했으며 평균가격은 45.74달러로 상승세 지속
- 한편, 서부텍사스중질유 및 북해산브렌트유도 각각 5.26% 및 3.78% 상승한 72.04달러 및 70.92달러에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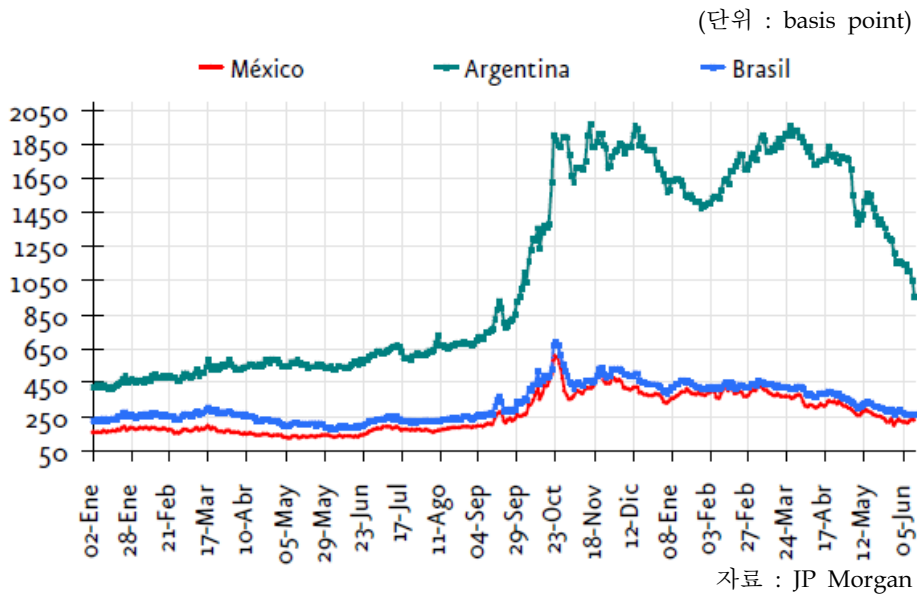
### 원유수출가격동향(배럴당 가격)



### □ 국가위험도

- 6월 12일자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의 개도국 위험지수(EMBI+)는 전주대비 14p 오른 228p 기록, 한편,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3p 및 183p 하락 하면서 266p 및 961p 기록

###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(EMBI+)



## 2.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

### □ Bancomer, 연말 인플레이션을 3.8% 예상

- Bancomer는 환율 변화로 인한 상승 위험이 있으나 연말 예상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전망보다 훨씬 낮은 3.8%로 예상
- 동 은행은 5월 비근원물가상승률이 역대 매년 5월 감소폭 중 최대치인 -0.43%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편, 통신산업 등 일부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

### □ UBS, 금주 중 멕시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50bp 인하 예상

- UBS는 오는 6월 19일 중앙은행 금리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
- 동사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연말 예상 인플레이션을 6% 미만으로 수정하는 등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진 것과 경기 순환 지표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, 지난 5월 75bp 인하에 이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
- 한편 동사는 연말 예상 금리는 4.50%가 될 것으로 전망

### □ BANAMEX, 멕시코 투자 하반기 회복 전망

- BANAMEX는 1분기 투자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, 에너지산업 등 일부 산업의 설비투자 계획으로 하반기부터는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
- 동 은행은 지난해 승인된 에너지 개혁법안에 따라 정유설비 등 신규 설비투자관련 입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, 올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19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

□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, 올해 4분기부터 경기 반등 언급

- Ortiz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가 3분기 중 경기가 바닥을 확인한 후 4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언급
- Ortiz 총재는 최근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회복 신호를 보이는 등 세계 경제 위기 국면이 해소되고 있다고 주장
- 한편,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나 지난해 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충격 때문에 성장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

<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>